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여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명동예술극장-유네스코회관-옛 수도국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채신기념관 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회현동 은행나무-남산오르미-회현시민아파트-호현당-남산도서관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학로-한무숙문학관

13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제6회 『신동엽의 종로5가』

코스 순서

- ①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신동엽 책방)
- ② 성북구청 앞 성북천(신동엽 집터)
- ③ 한성대입구역
- ④ 낙산
- ⑤ 창신동 봉제거리(봉제역사관 이음피움)
- ⑥ 동대문
- ⑦ 종로5가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의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잠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원삼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명동예술극장-유네스코회관-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채신기념관 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회현동 은행나무-남산오르마-회현시민아파트-호현당-남산도서관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화로-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 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작가 연보 및 생애



1930년 8월 18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신연순의 장남으로 출생.

1944년 부여 국민학교 졸업.

1948년 사범학교 4학년, 동맹휴학에 가담하여 퇴학.

1949년 단국대 사학과 입학.

1956년 가제 《야화》로 동인지를 내기 위해 준비함.

1957년 인병선과 결혼.

1959년 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며 등단.

1960년 교육평론사에 입사. 4.19가 일어나자 《학생혁명시집》 출판.

1961년 《자유문학》에 시론 〈시인 정신론〉 등 발표.

- 1963년 3월 첫 시집 《아사녀》 출판(발표작 10편, 신작 8편 수록).
- 1965년 한일협정 비준반대 문인서명운동에 참여.
- 《현대문학》에 〈삼원〉, 《사상계》에 〈초가을〉 발표.
- 1967년 1월 〈껍데기는 가라〉를 《52인 시집》에 발표.
- 1968년 시인 김수영이 타계하자 추모 조시 〈지맥속의 분수〉를 〈한국일보〉에 발표.
- 1969년 시론 〈시인, 가인, 사업가〉를 〈대학신문〉에, 〈선우휘 시의 홍두깨〉를 〈월간문학〉에 발표. 4월 9일 간암으로 사망.
- 1970년 《창작과 비평》에 〈봄의 소식〉 등 유작시 5편 발표.
- 1975년 6월 《신동엽 시 전집》 출간.
- 1979년 3월 시집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창작과 비평사) 출간.
- 1963 〈산에 언덕에〉, 〈아니오〉 등을 담은 시집 『아사녀』 출간.
- 1966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을 최일수 연출로 국립극장에서 상연하고 1967 펜클럽 작가 기금으로 총 4,800여행의 대작 장편 서사시 「금강(錦江)」 발표.
- 1968 오페레타 〈석가탑〉(백병동 작곡)을 드라마센터에서 상연.
- 1969 4월 7일 간암으로 별세. 경기도 파주군 월롱산 기슭에 안장.
- 1970 4월 18일 부여읍 동남리 백마강 기슭에 시비를 세움.
- 1975 사후 『신동엽 전집』이 창작과 비평사에서 간행됨. 책 내용이 긴급조치 9호 위반이라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판매금지.
- 1979 시선집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창작과 비평사에서 간행.
- 1980 증보판 신동엽 전집이 창작과 비평사에서 간행.
- 1982 유족과 창작과비평사가 공동으로 신동엽창작기금(현 신동엽문학상)을 제정하여 첫 지원대상자로 소설가 이문구씨가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른다. 1985 5월 유족과 문인들에 의해 신동엽 생가 복원.
- 1988 미발표 시집 『꽃같이 그대 쓰러진』(1988) 등이 간행되고 미발표 시집 〈젊은 시인의 사랑〉이 실천문학사에서 간행.
- 1989 시 〈산에 언덕에〉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
- 1993 11월 20일 부여읍 능산리 왕릉 앞산으로 묘소 이전.
- 200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서훈.
- 2005년 문화관광부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 2013년 생가가 있는 부여에 신동엽문학관 건립.



부여에 있는 신동엽문학관



용인 죽전 단국대 법대 앞 시비

생애



부여 신동엽 문학관에 세워진 시인의 흉상

신동엽은 1930년 8월 18일에 부여읍 동남리의 가난한 초가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났다. 전처소생의 아들은 죽고, 후처인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기 때문에 네 이복누이들은 가난 속에서 신동엽의 희생양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신동엽의 유년 시기는 일제의

군국주의가 수탈정책을 극도로 강화하여 헐벗고 굶주림이 지배하는 절대적 빈곤의 시대였다. 부여초등학교 시절 신동엽은 과묵하고 내향적 성격이었다.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고, 6년간 우등상을 탈 정도로 두뇌가 명석했다. 6학년 때 ‘내지성지참배단’의 그 학교 대표로 뽕혀 보름간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1944년 신동엽은 전주사범학교 입학한다.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 가난한 수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사범학교다. 학비가 훨씬 적게 들면서 초등학교에 발령이 나기 때문이다. 신동엽은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문학, 종교, 사상서에 파묻혀 살았다. 일제의 무리한 근로봉사와 굶주림으로 건강을 잃어가던 이 시기가 비로소 민족의식에 눈뜬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1948년 남한 총선을 반대한 동맹 휴학 가담으로 신동엽은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우익뿐만 아니라 좌익 학생들에게도 끌려가 심한 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좌·우익에게는 ‘중립’으로 여겨지는 그의 소박한 ‘민족주의’ 때문이었다. 그에겐 이데올로기보다 민중 자체가 더 중요했다. 이것은 모범적인 식민지 학생이나 혼자만의 문학세계에 빠져있던 모습과는 다른 내면의 변화를 나타낸다.

1948년 동맹 휴학 관계로 전주사범 기숙사에서 나와 귀향한 신동엽은 곧 부여 근처의 국민학교 교사로 발령받지만, 사흘 만에 그만둔다. 1949년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한 그는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진정한 민족주의가 좌절된 정치적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한의 서정으로 표현한 〈나의 나〉를 쓴 것이 이 때이다.(발표는 1962년 6월)

그는 대전 전시연합대학 재학 중에 백제 사적과 갑오농민전쟁 전적지를 답사한다. 이 답사로 인해 1960년대 대표적 참여 시인이 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반봉건·반외세의 갑오농민전쟁에서 그는 ‘적’을 인식하게 되는 확실한 역사의식을 가진다.

1950년 6.25 전쟁은 신동엽의 정신과 육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시기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바로 귀향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부여에서 민청 선전부장으로 지내다 수복 뒤 부산으로 도피했다가 12월 국민방위군에 징집된다. 군간부들의 부정부패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다 이듬해 2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귀향한다. 오랜 요양을 필요로 한 이 귀향길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가재와 민물의 날 게를 생으로 잡아먹는 바람에 뒷날 페디스토마로 고생하다 간암으로 요절하게 된다.

▶ 시인의 집터와 책방



시인의 사진 앞에 선 부인 인병선 집풀생활사박물관장



결혼식 사진과 연애편지

신동엽 시인의 아들 신좌섭은 “서점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당시 돈암동 사거리에 서점이 있었을 만한 곳은 현재 성신여대 사거리 국민은행 길 건너 정도(아리랑 고개 방향)였을 거예요. 그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아침저녁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길 건너 국민은행 쪽보다 소규모 상점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성북구 보문로 안감내천변 시인의 옛 집은 1962년부터 숨질 때까지 8년간 생활한 곳이다. 옛집은 적어도 신동엽 시인의 서울 연고지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공간임에도 그런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개량 한옥이었던 집은 허물어진 채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 흔한 표지석 하나 서있지 않다.

시인은 1953년 대학을 마친 뒤 제1차 공군학도 간부 후보생에 지원해 합격하지만 발령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다 한도령과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로 올라온 후 성북구 돈암동 네거리 한 귀퉁이 친구의 한책방에서 일을 하며 자취를 했다. 여기서 소설가 현재훈과 아내 인병선을 만난다. 인병선은 농촌 경제학의 권위자로서 동국대 교수로 있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된 인정식의 딸로 당시 이화여고 3학년생이었다.

“우리 집이 그 책방 근처여서 자주 들렀는데 내가 <타임>이나 <뉴스위크>와 같은 잡지들을 사니까 유심히 보아두었던 것 같았어요. 자연히 이야기가 오고가는 사이 목까지 여민 군인 잠바에 큰 눈박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체온과 시적 기운이 다섯 살이나 연하인 나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고 할까요.”

(인병선 산문집 『벼랑 끝에 하늘』)

인병선은 그의 책방을 자주 찾았다. 두 사람은 1957년에 결혼한다. 결혼하여 부여에서 신혼집을 차렸으나 가난은 여전했다. 아내의 양장점 개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자 구상회 등 문학 지망생들과 어울려 시인이 될 꿈을 키운다. 그는 부여 읍내에 차린 양장점에서 나오는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다 간신히 충청남도 보령군 주산농업고등학교의 교사 자리를 얻는다. 그러나 1958년 말에 갑자기 각혈한 뒤 폐결핵인 줄 알고 재직 중인 학교에 사직서를 낸다. 서울 돈암동의 처가에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홀로 부여에 남은 신동엽은 병과 가난 속에서 독서와 습작에 몰두한다. 이 시기에 그는 문명과 위선에 물든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한편 원초적인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을 노래한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써서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석림(石林)」이라는 필명으로 응모한다. 이 작품이 입선되어 문단에 나온 신동엽은 <조선일보>에 「진달래 산천」,

〈세계일보〉에 「시로 열리는 땅」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인의 길을 걷는다.



연애시절 인병선과 금강에서



1965년 가족야유회

1960년 건강을 되찾은 신동엽은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셋방을 얻어 가족과 합류한 뒤 〈교육평론사〉에 들어간다. 4월 혁명의 열기를 체험한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교육평론사〉에서 『학생 혁명 시집』을 펴내며 문학 쪽에서 혁명에 동참한다.

1961년 그는 종로구 관수동 102번지에 있는 명성여고 야간부 교사로 직장을 옮겨 숨질 때까지 8년 동안 교단에 선다. 신동엽에겐 이 8년이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그리고 혁명의 좌절로 인한 정신주의에 몰두한 시기로 정신사적 시론 「시인정신론」을 발표(1961.2), 무정부주의·동양적 정신주의·민족주의를 나타낸 시관을 보여준다. 신동엽은 4·19의 좌절로 더욱 정신주의에 침잠한다. 정치적 현실에 환멸을 느낀 그는 1962년 건국대학원에 입학하여 정신주의로 도피해 버티고자 한다. 이 때 쓴 시는 참여시 성격이 강한 작품임에도 동양적 형이상학으로서의 정신주의가 지배하고 있다(시집 『아사녀』).

「주린 땅의 지도원리」(1963.11)에서야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현실 참여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된다. 1964년 굴욕적 외교인 한일회담 일일합의와 정보기관의 학원사찰로 인한 학생 시위와 계엄 선포와 많은 학생들, 정치인, 언론인이 구속되는 결과를 낳고 좌절한다. 신동엽은 정신주의의 안주에서 현실로 뛰쳐나오게 된다. “한일 협정 비준반대 서명참여”를 한 그는 적극적 현실 참여로 쓴 시 「발」, 「4월은 갈아엎는 달」 등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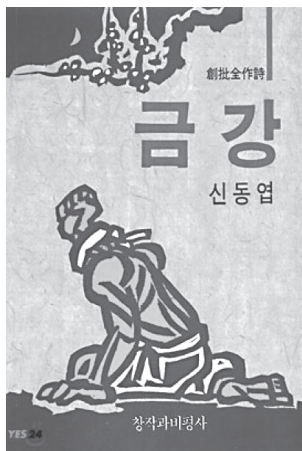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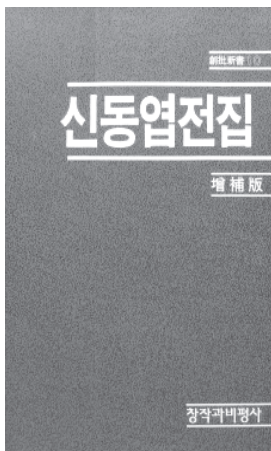
▶ 작품세계



시인의 시작노트

신동엽은 시를 통해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민족의 전통적 삶의 양식이 붕괴되는 과정과 이에 따른 현실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신동엽은 시극에 눈길을 주기도 한다. 1965년에 집필한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은 최일수의 연출로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시의 장르적 변용에도 관심을 보이며 열정을 분출하던 신동엽은 1967년 〈신구문화사〉가 간행한 현대문학전집 제18권으로 기획된 『52인 시집』에 그동안 발표한 시들과 신작시 「껍데기는 가라」 등 7편을 실음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다.

「껍데기는 가라」에서 선보인 ‘알맹이’, 동학혁명과 3·1운동과 4·19혁명을 통해 잉태된 그 ‘알맹이’는 조국의 향기로운 흙 가슴 속에 묻혀 있다가 「금강」에서 찬란하게 부화한다. 「금강」은 4천8백여 행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장편 서사시인데 1967년 “펜클럽 작가 기금”을 지원받아 〈을유문화사〉에서 펴낸 “한국 현대 신작 전집” 5권 “3인 시집”에 실린다.



「금강」은 당대의 뛰어난 시적 업적으로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체념주의와 허무주의, 토속적인 샤머니즘에 근거한 운명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작품이다. 1968년 신동엽은 장편 서사시 「임진강」의 집필을 계획하고 자료 준비를 위해 임진강변의 문산 등을 답사하지만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는 대신에 전5집으로 구성된 오페레타 「석가탑」을 써서 드라마센터 무대에 올린다.

1968년 6월 16일 김수영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지자 그는 깊은 슬픔에 빠진다. 김수영의 갑작스런 죽음을 몹시 슬퍼한 그도 이듬해인 1969년 4월 7일, 간암 선고를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서울 성북구 집에서 서른아홉 살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그가 죽은 뒤 미처 활자화되지 못한 유작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조국」, 「영(影)」, 「서울」 등이 《고대문학》, 《월간문학》, 《현대문학》, 《상황》 등에 발표된다.

1970년에는 〈사상계〉와 〈창작과비평〉에 「좋은 언어」, 「봄의 소식」, 「강」, 「살덩이」, 「만지(蠻地)의 음악」 등이 실리고 부여읍 군수리 나성터 금강 기슭에 그의 시업을 기리는 시비가 세워진다. 1975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신동엽 전집』이 나온 이래 1979년 선시집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983년 『신동엽 - 그의 삶과 문학』 1984년 『껍데기는 가라 - 신동엽 평전 시선집』, 1989년 시집 『금강』이 잇달아 간행된다.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자주와 해방을 알기 쉬운 언어로 노래한 민족시인 신동엽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그가 숨진 뒤 오히려 높아졌다.

▶ 시인의 자연공간



신동엽(申東葉, 1930~1989) 시인의 유산으로서 정문여동재의 조상인 장의 역
전에 이곳은 1989년 유족과 불자들이 의해 복원된 가옥으로 안채, 중, 대문, 동문
계승복고자 2007/11월3일 동부문화재단에 공표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신동엽의 시에서 ‘도시’와 ‘자연’이라는 두 공간이 대립적인 장소로 배치되어 있다. 도시는 부정적인 공간이며 자연은 유토피아적인 공간이다. 단순 이항대립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 구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는 다른 아닌 그 공간 속의 ‘인간’들이다. 신동엽의 시에서 도시는 우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묘사되어 근대화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시는 빈민과 노동자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들의 치열한 삶을 통해 새로운 긍정의 요소를 함께 지니므로 양가적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신동엽은 자연적 삶의 원리와 인간적 삶의 원리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원수성(原數性)’, ‘차수성(次數性)’, ‘귀수성(歸數性)’의 원리이다.(신동엽, 「시인정신론」), 이 원리는 다른 아닌 주기적인 우주순환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봄→여름→가을→겨울→봄’으로 순환하는 자연처럼, ‘유년→장년

→노년→죽음→유년(탄생)으로 순환하는 인간처럼, 그가 주장하는 삶의 원리도 ‘원수성→차수성→귀수성→원수성’으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엽 시인이 이러한 삶의 원리를 시론적 정신으로 내세운 이유는 간단하다. 자연은 우주 순환적인 삶을 따르고 있는데 비해서 인간은 그것을 저버리고 문명적 삶, 곧 이성적인 삶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삶에 의해 발전된 기계문명은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오히려 암흑과 절망과 파괴를 가져다주고 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닌 소수의 강자(기계문명국가, 민족, 개인 등)가 대다수의 약자(미개 문명 세계)를 자기 욕망대로 소유하고 억압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신동엽은 이렇게 파괴적인 현대 문명생활을 ‘차수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차수성’을 자연적 삶의 원리로 보면 ‘여름’에 해당하고, 인간적 삶으로 보면 ‘장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간은 여름과 장년에 해당하는 기계문명, 물질문명만을 향유하려고 고집한다. 달리 말하자면, 가을과 노년에 해당하는 쇠락의 문명(기계문명의 포기)으로 가야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엽 시인이 이를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신동엽은 현대의 파괴적인 기계문명이 계속 지속될 때(여름의 시기) 인간에게 남는 것은 암흑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기계문명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자연이 그 여름(생의 충만)을 버리고 가을(생의 소진)을 새롭게 맞듯이 말이다.

자연이 순환하듯이 인간의 문명도 순환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낼 수 있다. 신동엽이 말하는 ‘전경인’이란 바로 그러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사람을 뜻한다. 곧 ‘우주 순환적인 삶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전경인’인 것이다.

신동엽의 ‘자연’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키울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 잃어버린 원수성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귀수성의 세계가 그가 그리는 유토피아이다. 신동엽은 「시인정신론」에서 유사 이후의 문명역사 전체가 인종계의 여름철 즉 차수성 세계에 속한다고 보고, 문명 이전의 에덴의 동산을 원수성의 세계라 보았다. 고향을 버리고 차수성의 세계로 들어온 인류 문명이 폭력성을 버리고 원시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귀수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전경인적인 생활 태도라고 신동엽은 보았다. 그가 인물 형상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자연 공간은 귀수성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동엽의

시가 구축하는 자연 공간에서 등장하는 민중 형상은 사실상 그가 상상한 전경인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다.

사양들 마시고
지나 오가시라
없는 듯 비워둔 나의 자리.

와, 춤 노래 니겨
싫으신 대로 디더 사시라.

한물 웃음때 돌아가면
나 죽은 채로 눈망을 열어
갈겨진 이마 가슴과 허리
황량한 겨울 벌판 돌아보련다.

해와 눈보라와 사랑과 주문,
이 자리 못 물고
굴러떨어져 갔음은
아직도 내 봉우리 치솟은 탓이었노니.

글면 또 허물으련다
세상보다,
백짓장 하나만큼 낮은 자리에

나의 나
없는 듯 누워.

고이 천만년 내어주련마.
사랑과 미움 어울려 물 익도록.
바람에 바람이 섞여 살도록.

- 「나의 나」(전집25쪽) 전문

원수성의 자연 공간 중에서도 신동엽의 시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공간은 대지이다. 그것은 땅, 발, 돌, 눈, 미개지 등 다양한 세목으로 그려지는데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대지의 질긴 생명력은 그곳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민중들에

게로 이어진다. 신동엽의 시가 새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을 형상화할 때 그것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대지의 심상지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나의 나〉에서처럼 시인은 자연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한없이 낮게 살으라고 다짐한다. 내가 치솟은 봉우리처럼 되면 허물고 백짓장 하나만큼 낮은 자리에서 없는 듯 누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리라. 한겨울 들판에서도 빈자리를 만들어 “사랑과 미움 어울려 물 익도록, 바람에 바람이 섞여 살도록” 해와 눈보라와 사랑과 주문을 하며 살자고 한다, 이처럼 신동엽은 우선 문명화되기 이전 세계에 대한 강한 향수와 동경을 품고 있다. 그가 「시인정신론」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파도가 일기 전의 잔잔한 해변에 비유되는 ‘원수성 세계’에 대한 갈망이 진하게 배어 있다. 그의 대표 시의 하나로 손꼽히는 「향아」가 그 좋은 예이다.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려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내 사물이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
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낫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던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가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
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끼지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내 사물 구비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향아」 전문(전집10쪽)

‘향아’를 연달아 호명하면서 화자가 건네는 전언은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이다. 그 옛날의 풍경은 즐겁게 웃으며 노동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동반한 채 그려진다. 제 몸을 써서 일하는 즐거움을 아는 소박한 민중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옛날의 자연 공간은

신동엽의 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유토피아이다.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과 냇가에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과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과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모습,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이 그곳에 있다.

더불어 즐겁게 일하며 행복해 하던 그 시절을 오래지 않은 옛날이라고 말하면서도 화자는 ‘전설’ 같다고 비유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행복한 노동의 상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하게 어우러지던 그 전설 같은 풍속을 훼손시킨 것은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인 것으로 드러난다.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미끈땀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면서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내”를 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꿀 줄 알았던 “미개지”의 행복한 시절과 멀어지게 한 것이다. 화자가 돌아가자고 외치는 옛날은, 소박한 목숨의 행복을 훼손하는 허울과 허식을 벗어던진 세상이다.

이는 신동엽이 회복하고자 한 원수성의 세계에 대한 시적 표상으로 읽을 수 있다. 문명이 나 인위보다는 자연을 선호하고, 원수성을 회복한 귀수성의 세계로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한다고 전망한 신동엽의 지향점이 여성을 청자로 호명한 이런 유형의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보세요 아사녀. 당신이나 나나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가차운데 가리워져 있었어요.
말해 볼까요. 걷어치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포동 흰 알살을 덮은 두드리기며 딱지며
면사포며 낙지발들을 면도질해 버리는 거예요. 땅을 갈라놓고 색칠하고 있는 건 전혀
그 흡난족들뿐의 탓이에요. 면도질해 버리는 거예요. 하고 제주에서 두만까질 땅과 백
성의 웃음으로 채워버리면 되요.

누가 말리겠어요. 젊은 아사달들의 아름다운 피꽃으로 채워버리는데요.
그래서 과녁을 낮추자 얘기해 왔던 거예요. 사월에 맞는 건 모자, 모자뿐 날라갔어요.
심장이, 허지만 등치가 성성하군요. 보세요 다시 떠들기 시작하는 저 소리들. 오백년
불어살던 궁전은 그대로 무슨 청인가로 살아있어요. 잇달은 벼슬아치들의 중앙탑에의
행렬이 곧두 서 볼만군요. 겨냥을 낮추자는 얘기에요. 모자가 아니라 겨드랑이 아니라
아랫도리를 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로소, 허면 두 코리아의 주인은 우리가 될 거예요. 미워할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들끼리 실컷 미워하면 되는 거야요. 아사녀와 아사달은 사랑하고 있었어요. 무슨 티도 무슨 보첩도 소제해 버리세요. 창칼은 구워서 호미나 만들고요. 담은 혈어서 토비로나 뿌리세요.

비로소, 우리들은 만방에 선언하려는 거야요. 아사달 아사녀의 나란 완충, 완충이노라고.

- 「주린 땅의 지도원리」(전집 , 46~47쪽) 부분

이 시에서 시의 화자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핍박받아온 주린 땅의 원리를 극복하고 이 땅에 새로운 삶의 원리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동엽의 시에서 알몸은 원시의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종종 드러나는 데, 바로 그런 건강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흰 알살”을 덮고 있는 것은 두드러기, 딱지, 면사포, 낙지발들로 이루어진 “흡반죽들”이다. 흡반죽들은 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배층과 외세에 대한 비유로 신동엽의 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다. 인용한 부분에서 흡반죽은 아사녀와 아사달의 사랑을 가리고 아사녀와 아사달로 표상되는 민중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존재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미움을 흡반죽들에게 돌려주고 이 땅의 주인은 아사달과 아사녀라고 만방에 선언하는 행위는 ‘사랑’을 확인하고 공표하는 행위이자 이 땅이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행위가 된다.

아사녀를 호명함으로써 이 시의 화자는 주린 땅의 주린 백성의 신세에서 벗어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삶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 아사녀와 아사달은 단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뿐인 소박한 목숨의 상징이지만 이들이 구축하는 사랑의 힘은 “창칼은 구워서 호미나 만들고”, “담은 혈어서 토비로나 뿌리”는, 전쟁과 핍박 없는 완충지대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완충지대는 평화를 전제로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이 땅의 민중들이 희망하는 공간이 된다.

신동엽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 이 땅에 민중의 건강한 생명력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래로부터 끓어오르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민중의 힘을 믿는 신동엽의 역사적 전망과 관련지어 읽어야 할 것이다.

껌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껌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 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의 대표작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아사달과 아사녀는 역사의 주체로 새롭게 선 민중을 표상한다.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바로 ‘중립’의 초례청 앞이다. 완충지대와도 연결되는 ‘중립’의 공간은 모든 대립과 분열을 넘어선 평화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공간이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아사달과 아사녀가 한 몸으로 평화로운 중립 지대에 더불어 서 있는 것이야말로 신동엽이 진정으로 꿈꾸었던 세계였을 것이다.

하루 해
너의 손목 싸 쥐면
고드름은 운하 이천서
녹아 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꺾 건지다 보면
밀동 긴 폭포처럼
역사는 철 철 흘러가 버린다.
피 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 영 넘으면
완충지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 젖은 안 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세우고
치솟은 삼림 거니노라면
초연 걷힌 발두덕가
풍장 울려라.

- 「완충지대」(전집, 43쪽) 전문

완충지대는 국가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으로 인한 물리적 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 중간지역에 설정하는 중립 내지 비무장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완충지대를 비유하는 신체어들은 여성의 신체를 연상시키는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동엽은 완충지대가 갖는 평화의 속성을 여성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동엽 시에서 민중의 표상으로 주로 등장하는 여성 형상은 대지라는 공간을 종종 동반하는데, 이는 대지적이고 농본적인 상상력에 뿌리를 둔 신동엽의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땅과 산하는 신동엽의 시에서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자 생명을 품고 기르는 모성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새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여성은 모성으로 거듭나며 이후의 역사를 이끌 주체를 탄생·성장시키는 과업을 부여받게 된다.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토 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에 업혀
누님과 난, 곧잘
파랑새 노랗 배웠다.
울타리마다 담쟁이넉출 익어가고
밤머리에 수수모감 보일 때면
어디서려 없이 새 보는 소리가 들린다.
우이여! 휘어이!

쇠방울 소리 뿌리면서
순사의 자전거가 아득한 길을 사라지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흙토방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노래 배워주던 그 양품 장수 할머니를 기다렸다.

- 「금강」

「금강」은 배다른 누나와 함께 파랑새 노래를 배우기 위해 양품 장수 할머니를 기다리던 시인의 애절한 회상에서 시작한다. 그 물줄기는 4·19혁명에서 1919년의 기미독립운동으로, 다시 1894년의 동학혁명으로 거슬러 오르며 굽이굽이 장강으로 펼쳐진다. 총 26장으로 구성된 이 서사시는 사건을 차례대로 늘어놓지 않고 현재와 과거를 오가거나 병치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엿보게 한다.

「금강」에서 신동엽은 농민들의 분노와 저항으로 불타오른 1894년 동학혁명 얘기를 할 때 실존 인물인 전봉준, 최제우, 최해월 등과 함께 시인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가상 인물 ‘신하늬’를 등장시켜 시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시인은 이 시에서 연민을 느끼는데 주저앉지 않고 연민의 근원을 생각하고 연민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맹렬한 분노를 폭발시키며, 동학이야기에서 오늘날의 상황에 대응하는 과거를 발견한다. 「금강」의 “서화”에서 시인은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 1960년 4월 /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장을 찢고 /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자유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새겨놓는다.

동학혁명과 겹쳐 떠오르는 이 4월 혁명의 내면에서 들끓는 민중의 염원은 다름 아니라 인간 본연의 삶, 민족 고유의 신명과 덕성이 어우러진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시에 나오는 “맑은 하늘”이 표상하는 것은 바로 외세의 짓누름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삶이다. 그것은 이미 「껍데기는 가라」에서 노래한 바 있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 아사달 아사녀”의 삶이기도 하다.

신동엽은 시를 개인적 즐거움보다는 ‘민족 공동체의 노래’로서의 시에 의미를 두었던 만큼 이념적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는 시를 이념의 대행물이나 종속물 또는 도구화로 만들지 않았다. 그의 시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이미지들 ‘하늘, 눈동자, 껍데기, 알맹이, 4월, 동학, 아사달과 아사녀, 중립, 흙가슴, 쇠불이’ 등은 신비롭거나 원시적이며 상고 시대의 동양적 유토피아를 연상시키는 것들이다. 그의 시는 이러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시적인 즐거움과 함께 이념을 보다 순수하게 승화시키고 있다.

▶ 시인의 도시공간



정부 주도의 근대화를 향해 달려가던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그늘을 신동엽의 시는 도시 빈민의 형상화를 통해 주목하고 있다. 신동엽의 시에서 근대적 도시 공간은 부정적인 극복의 대상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안고 있는 양가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물 형상과 그들의 관계를 통해 신동엽의 시가 새롭게 구축한 도시 공간의 심장지리라고 할 수 있다. 신동엽의 시가 그리는 도시 빈민에는 공사판 막노동꾼 같은 일용직 노동자, 변화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일하는 창녀, 시골에서 갓 상경한 소년 등이 등장한다.

이슬비 오는 날.
종로 5가 서시오관 옆에서
낮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열한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 신은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선 먼 길 떠나 온 고구마가
흙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건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쪽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 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덩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 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쭉,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이조 오백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길 삼백리 서울로 왔지.
 고층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광고만 뿌리는 그머리 마을,
 또 무슨 녀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낮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 「종로5가」(신동엽전집 증보판, 창작과비평사, 2004, 69~71쪽) 전문

밤 열한 시 반, 서울 도심의 종로 오가에서 노동에 지쳐 퇴근하던 화자는 동대문이 어딘지 물어보는 낮선 소년과 우연히 마주친다. 통금에 쫓기는 바쁜 발걸음들 속에서 동대문을 찾아 헤매는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새로 사 신고 올라온 운동화가 아까워 벗어서 품고 있다.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상상하기 시작한다.

언젠가 화자가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우연히 보게 된 종로 뒷골목 창녀가 어쩌면 그 소년의 누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어지고, 전에 보았던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에서 자갈지게 등짐지다가 허리를 다쳐 쓰러진 노동자가 그 소년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이어진다. 신동엽이 시를 쓰던 1960년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공장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많았으며 서울에서 막노동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또한 흔히 볼 수 있었다.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를 지닌 소년에게 연민을 느끼는 화자는 오래 전 처음 서울 땅을 밟은 화자의 눈과 같이 소년과 같은 맑고 순수한 빛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화자는 인파에 사라진 소년의 순수함이 머잖아 이 도시에서 훼손될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우울 감에 젖는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신동엽의 시에서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그

까닭은 이 도시가 그곳에서 몸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가난과 불행 속에 그들의 삶을 가두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일제 말에 가난에 시달리다 야반도주해 북간도로 간 사람들과 1960년대의 시골에서 가난에 내몰리다 서울로 일자리를 구하러 올라간 사람들은 매한가지다.

“이조 오백년은 끝나지 않았다”는 시적 화자의 인식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날품팔이 노동자와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여성, 그리고 머잖아 이 도시에서 구두땀이 통을 메고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를 소년은 1960년대 당시의 도시 빈민을 형상화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신동엽의 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도시 빈민의 우울하고 슬픈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도시의 부정을 강화한다. 근대화를 향해 치달던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이런 우울한 표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백화점 층계를
비 뿌리는 오후, 내려오던 다리.

스카아트 속을
한가한 미풍은 왕래하고 있었지만
감정 힐 위 중력을 주면서
가벼운 오뇌 속삭이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되어
너희들의, 걸음은
어데까지 가고 있는 걸까.

희끗희끗 눈발 날릴 때
중학교 원서 접수시키러 구멍가게 골목
종종치던 종아리.

송화강 끝에서도 왔다
구름 같은 흙먼지,
아세아 대륙 누워런 별판을
군화 묶고 행진하던 발과 다리,
지금은 어데 갔을까.

꽃 피는 남국
부드러운 모래밭 해안에 배가 닿으면
부지런히 신무기를 신고 뛰어내리던
이유없는 발톱.

보리밭을 밟고 있었다,
물방아 위에도 있었다,
해수욕장에선
그 싱싱한 허벅다리 사이로
태양이 지고.

깎아놓은 유리창 위 비는 내리고
넘치는 가슴덩이
찰떡같이 몸부림은 흐느낀 때,
노래하고 싶었다.
뱀같이, 열반같이, 경련하다 급기야
나른하게 죽어 뻗던 그 흰 다리.

다리,
너를 보면
빛나는 여름
우뢰소리 들으며 산맥을 넘던
낭만,

나리꽃 동산에 전쟁은 가고
채소밭 가운데 섰던
국적 모를, 두 개의 무릎뼈에도
눈은 없었다.

어머니를 불렀지.
집행장 문앞
엄버티었지, 안 가겠다고
있는 힘 다하여 안간힘하며
마지막 땀 흘리던
연약한 다리여.

밀회도 실어 날랐지,
작취로 기름진 아랫배,
음모로 반짝이던 골통들도 실어 날랐지,
그리고 눈은 없어도
링 위에선 멋있게 그놈의 턱을 걷어찼다.

다들 남의 등 어깨 위로 올라갔지만
아직 너만은 땅을 버리지 못했구나
넌 우리 조국
넌 하층구조
내 한을 실어오고 또 실어간다.

백악관 귀빈실 주단 위에도 있었어,
대영제국 궁전 금의자 아래에도 있었어,
종로 삼가 창녀 아랫목에도 있었지,
발바닥
코 없는 너를 보면
눈물이 날밖에.

강산은 좋은데
이쁜 다리들은 털난 팔라들이
다 자셔놔서 없다.

일어서야지,
양말 신은 발톱 흉물 떨고 와
논발 위 세워 눈, 억지 있으면
비벼 꺾어야지,
열번 부러져도 그 사랑
발은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
발은 인류에의 길
밟고 밟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
다리는, 절름거리며 보리수 언덕 그 미소를 찾아가려 나왔다.

다시 전화는 가고
쓰러진 패허
함박눈도 쏟아지는데

어데서 나왔을까, 너는 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 「발」(전집, 58쪽)

이 시에서는 두 개의 발이 등장한다. 여성의 신체인 발과 남성의 발이 그것이다. 중학교 원서 접수시키러 구멍가게 골목에 종종치던 두 종아리 중 하나는 송화강 끝까지 군화 묶고 행진하다가 집행장 문 앞에서 안 가겠다고 있는 힘 다하여 마지막 땀 흘리던 연약한 발이다. 또 하나의 발은 종로 삼가 창녀 아랫목에도 있게 되었고, 그 이쁜 다리들은 털이 난 딸라들에게 팔리고 없다.

전화(戰火)는 가고 쓰러진 폐허에 함박눈이 쏟아지고 난 후, 시간이 흘러 비 뿌리는 오후 검정색 하이힐을 신고 스커트를 입은 다리는 백화점의 층계를 걷는다. 감정 힐 위 중력을 주면서 내려오는 발은 도시 여성을 대변한다. 그 다리가 누비는 도시 공간은 백화점의 층계이다.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다리로 표상되는 도시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도시의 화려한 소비 지향과 물질만능주의를 상징하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긴밀하게 맞물림으로써 근대 도시의 또 다른 부정적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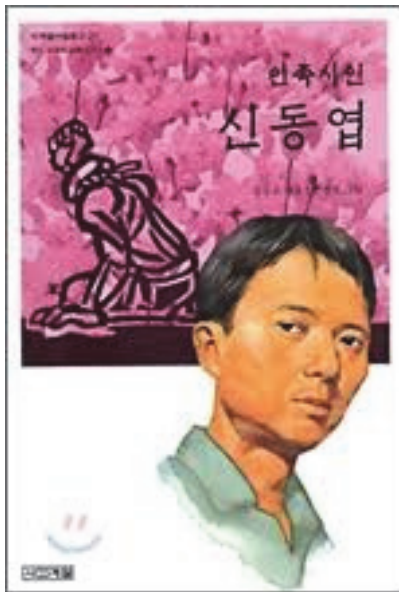
신동엽의 시가 그린 도시 빈민들이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면, 그들의 반대편에는 바로 도시의 화려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자전차 탄 신사 날씨좋은 8월
이 마을 황토길을 넘어오면
싸릿문 앞엔 무표정한 납세고지서.
신식의 북새는 해마다 신록아래 있었고
붓깍지로 빼앗긴 사천만의 가슴
행복은 멀리 몇 뿌리의 도시탐위
끓어 있었다.
오늘도 광화문 앞 마당
고등식을 배 불린 해외족의
마이크 연설.

- 「주린 땅의 지도원리」(전집, 46쪽) 부분

이 시를 통해서 도시 빈민이 양산되는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황토로 상징되는 이 땅은 무표정한 얼굴로 날아드는 납세고지서에 멍들어 가고 ‘사천만의 가슴’은 각종 세금에 모조리 빼앗겨 굶주려 가는 반면, ‘광화문 앞마당’으로 표상되는 도시 공간은 고등식을 배불리 먹은 해외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도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은 가진 자들의 차지이고, 소수의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많은 도시 빈민과 가난한 농민들이 양산된다. 이것은 바로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과 근대화가 한창이던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했다. 행복은 멀리 도시탑 위에서 굶아가고 있을 뿐 도시 빈민들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다.

▶ 신동엽과 김수영



신동엽의 시에서는 기념비적 역사의 공간이 종종 호명된다. 신동엽의 시에서 의미 있는 역사로 자주 호명되는 사건은 동학 혁명과 4·19 혁명 등이다. 그 중에서도 동학 혁명의 주체들이 소탕되거나 죽어간 곳으로 산이 자주 등장한다. 4·19 혁명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로는 광화문이 기억되기도 한다. 그리고 백제로부터 동학, 1960년 4·19로까지 이어지는 면면한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로 금강이 소환되기도 한다. 이때 기념비적 역사의 장소와 함께 호명되는 인물들 중에는 전봉준과 같은 실제 역사 속 영웅들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 가장 비중 있게 호명되는 인물은 무명의 민중 주체들이다. 아사달, 아사녀, 신하늬, 인진아로 대표되는 가진 것 없는 민중 주체들은 신화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4월 19일,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이 우랄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양달진 동
남아 하늘 고흔 반도에 이주오던 그날부터 삼한으로 백제로 고려로 흐르던 강물, 아름
다운 치마자락 매듭 고흔 흰 허리들의 줄기가 3·1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 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 오른 아사달 아사녀의 몸부림, 빛나는 앙기슴과 물구비의 찬란
한 반향이었다.

물러가라, 그렇게 쥐구멍을 찾으며
검불처럼 흩어져 역사의 하수구 진창 속으로
흘러가버리렴아, 너는.
오욕된 권세 저주받을 이름 함께.
어느 누가막을 것인가
태백줄기 고을고을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진달래·개나리·복사
알제리아 흑인촌에서
카스피해 바닷가의 촌아가씨 마을에서
아침 맑은 나라 거리와 거리
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에서
노도처럼 일어난 이 새피 뽀는 불기둥의
항거……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
길어도 길어도 다함없는 샘물처럼
정의와 율분의 행렬은
억겁을 두고 젊음쳐 뒤를 이을지어니
온갖 영광은 햇빛과 함께,

소리치다 쓰러져간 어린 전사의
아름다운 손등 위에 퍼부어지여라.

- 「아사녀」(전집, 17~18쪽) 부분

이 시는 1960년 7월에 나온 학생혁명시집 에 수록된 것이다. 신동엽의 시에서 4·19가 지나는 의미는 결정적인데, 그것은 역사학도로서의 그의 남다른 역사의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신동엽은 4·19 체험을 통해 역사의 희망을 보았다. 그는 4·19를 일제 강점기의 3·1운동, 더 거슬러 올라가 동학혁명과 고려, 백제, 삼한으로 이어지는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한다. 이 시에서 강은 백제로부터 4·19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비유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흘러간 구체적 역사를 밝히는 공간이 된다.

태백줄기로 구체화된 산맥 역시 마찬가지다. 신동엽의 시에서 금강과 태백줄기 같은 장소는 그런 기념비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아래로부터 분출한 민중의 생명력을 보여준 4·19의 역사의 현장으로 소환된 “광화문 앞마당”과 “효자동 종점”도 노도처럼 일어난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장소가 된다. 시의 화자는 4·19에서 “아사달 아사녀의 몸부림, 빛나는 양가슴과 물굽이의 찬란한 반향”을 보아낸다.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시인이 형상화한 인물이 바로 ‘아사달, 아사녀’인 것이다. 저 “자유에의 의지”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시인은 단언한다.

“길어도 길어도 다함없는 샘물처럼”, “정의와 울분의 행렬”이 이어지길 바라는 시인의 희원이 이 시에 담겨 있다. 아사달과 ‘아사녀’는 신동엽의 시에서 민중 주체의 표상으로 한 쌍으로 등장해 왔다. 그 중에서도 ‘아사녀’를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은 신동엽이 역사의 생명력을 이어나갈 주체로서 아사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아사녀’를 통해 핍박받은 역사의 희생양으로부터 벗어나 찬란한 반향의 역사를 열어가는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유월의 하늘로 올라 보아라
푸른 가슴 턱 차도록 머리칼 날리며 놀메기 꿀 익는
유월의 산으로 올라 보아라.
유월의 하늘로 올라 보아라
벗겨진 산골짜마다 산 열매 익고
개울 앞마다 머리 반짝이는 빛나는 탄피의 산.

포푸라 늘어진 등성이마다
 도마뱀 산동리 끝
 유월의 하늘로 올라 보아라.
 바위를 굴러 보아라. 십삼도 강산 가는 곳마다 매미 우는 마을. 무너진 토방
 멀리 도시로 가는 반질 달은 나무 뿌리 흰 신작로를 달리어 보아라.

(중략)

유월의 동산으로 올라 보아라.
 콩밭마다 덩굴던 향기 진한 대가리.
 팔월이 오면 점심 마당 농주통,
 구슬 뿌리며 역사마다 구멍 뚫려 쏟아져 간 아름다운 얼굴, 북부여 가인들의 장삼자락
 맨 몸을 생각하여 보아라.
 유월의 하늘로 올라 보아라.

황진이 마당가 살구나무 무르익은 고렷팡, 늦겨울 속을 아침저녁 드나들었
 을 눈매 고흔 백제 미인들의.
 지금도 비행기를 바라보며 하늘로 가는 길가엔 고개마다 괴나리봇짐 쇠바퀴
 밀므로 쏟아져 간 흰 젓가슴의 물결치는 아우성 소리를 들어 보아라.

- 「아사녀의 울리는 축고」(전집, 23~24쪽) 부분

이 시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하는 ‘유월의 하늘’과 ‘유월의 산’은 이 땅의 민중들이
 상처입고 핍박당했던 한국전쟁을 연상시킨다. 동쪽끼리 미워하고 서로 총부리를 들이대
 야 했던 한국전쟁은 이 땅에도 그만큼의 상흔을 남겨, “줄줄이 살빼도 흘러나려 내를 이루
 고 원한은 물레발을 이랑 이뤄 만사꽃을 피”우게 했다. “푸른 가슴 턱 차도록 머리칼 날리며
 늘메기 꿀 익는” 아름다운 6월의 산은 전쟁으로 인해 ‘탄피의 사’이 되어 버렸다.

이 시의 화자는 6월의 하늘과 6월의 산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6월을 보냈을 이
 땅을 흘러간 역사의 시간과 그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아낸다. 북부여 가인들의 장삼자
 락도 보이고, 눈매 고운 백제 미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임진난리의 우렁찬 외침”도 들려온
 다. 괴나리봇짐 메고 피난 가던 행렬과 혈벗은 민중들의 아우성 소리도 눈에 밝혀 온다.
 화자에게 6월의 하늘과 6월의 산은 그곳에서 살아간 이 땅 민중들과 동일시된다. 제목에
 등장하는 ‘아사녀’는 민중들의 표상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은 셈이다.

백제,
옛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거름을 남기는 곳,
금강,

옛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바람버섯도
찢기우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새 씨가 된다.
그러나
찢기우지 않은 바람버섯은
하늘도 못보고,
번식도 없다.

(중략)

진아는
금강가에 서 있었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
수면은, 수억만 개의 물광개
신고 흘러간다
조그만
보자기 끼고 나룻배
기다리는 진아의 머리, 목덜미
앞가슴 허리 아래를
강물은 흘러내린다,
살아 있을까 하나는.

아직, 그리고
나 생각하고 있을까,
불타던

부여의 집,
통곡하던 마을과 마을,
그럼 우리가 갈 곳은?
하늬는
자기 죽음을 예감했던걸까,
진아는 허리 더듬어 치마 속으로
은방울 만져보았다,
아기 낳거든
자기와 똑같은 이름, 하늬로
부르라 했다, 그리고 은방울 달아주고,
해주길 떠나던 날 아침.

- 「금강」(전집, 283~287쪽) 제24, 25장 부분

신하늬와 인진아를 중심으로 동학 혁명으로부터 1960년 4·19까지 이어지는 민중의 역사를 기록한 서사시 「금강」에서 동학 혁명의 실패 후 민중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할은 인진아에게 맡겨진다. 답답한 궁궐에서 도망쳐 나와 신하늬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여인 인진아는 “하늬를 만나기 위해/태어난/여자”이자 “하늬를/만나기 위해 성장한/육체”로 그려지지만, 그것이 수동적인 여성상을 지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동학 혁명의 봉기를 올리는 순간 역사의 현장에 주체로 선 것은 신하늬였지만, 신하늬가 실패한 역사의 희생양이 된 후에도 인진아의 몸에서는 “또 하나의 하늬”가 자라 세상에 나온다. “아기 낳거든/자기와 똑같은 이름, 하늬로/부르라”는 신하늬의 전언은 그의 유언이 되고 말지만, 그의 이름을 받은 또 하나의 하늬는 그의 뒤를 이어 뒤를 이어 민중의 역사를 일구어 갈 것이다. 아기 신하늬와 그의 어머니 인진아를 통해 신동엽의 시는 수많은 또 하나의 하늬들이 실패한 민중 봉기의 역사 이후를 이어갈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새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여성 인진아는 모성으로 거듭나며 이후의 역사를 이끌 주체- 복수의 ‘신하늬’들-를 탄생·성장시키는 과업을 부여받게 된다.

신동엽의 시에서 민중 주체의 형상 중 여성 형상은 대지라는 공간을 토대로 등장한다. 이는 신동엽 시의 농본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명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산하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대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의 시에서 종종 ‘아사녀’와 ‘인진아’ 같은 여성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아사녀’는 그의 대표적 서사시 「금강」에서 ‘인진아’의 형상으로 계승되는데, 이들의 근거지가 백제의 땅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시인의 고향이 부여이기도 하지만, 백제는 신동엽의 시에서 특별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 받는다. 삼국시대를 거쳐 동학, 3·1운동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역사의 승리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역사가 그곳에는 흐르고 있다.

민중 봉기의 선봉에 선 적이 많았던 만큼 지배계층에 의한 핍박도 심했던 역사 또한 그곳에 흐르고 있다. 신동엽이 백제의 여인 ‘아사녀’와 ‘인진아’에 주목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위의 시에서 인진아가 서 있는 곳이 금강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금강은 백제의 역사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간이며, 예로부터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거름과 정신을 남기는 기념비적 장소이다.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를 앞세운 196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신동엽은 물질문명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저항적인 민중 주체를 끊임없이 그리면서 ‘다른’ 역사를 꿈꾸었는데, 궁극적으로 그가 희구한 세계는 원수성을 회복한 평화로운 귀수성의 세계였다. 그것은 종립과 완충지대로, 훼손당하지 않은 산하로, 금강으로, 실패한 혁명 이후를 수습하는 민중 주체, 특히 여성의 모습으로 그의 시에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5월 50주기를 맞아 열린 기념사업 관련 기자간담회

신동엽의 시에서 도시가 부정적으로 그려져 왔다는 편견으로 인해 그가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되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도시 공간을 부정적으로 그리면서도 신동엽의 시적 주체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대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도시 노동자였다. 도시 노동자로부터 새로운 민중 형상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신동엽의 시선은 1960년대 시사에서는 매우 선구적인 것이었다. 도시의 뒷골목에 형성된 창녀촌은 도시의 음울함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주로 그려져 왔지만, 신동엽의 시에서는 그곳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 도시의 밑바닥을 이룬 민중 주체들, 도시라는 근대적 공간의 희생양들에게서 신동엽의 시는 새로운 민중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읽어낸다. 신동엽의 시에서 도시의 뒷골목과 거리가 독특한 심상지리를 형성하는 까닭은 바로 그곳이 이들 민중 주체의 주거지이자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초가을, 머리에 손가락 빗질하며
 남산에 올랐다.
 팔각정에서 장안을 굽어보다가
 갑자기 보리씨가 뿌리고 싶어졌다.
 저 고층 건물들을 갈아엎고 그 광활한 땅에
 보리를 심으면 그 이랑이랑마다 얼마나 싱싱한
 곡식들이 사시사철 물결칠 것이라.
 서울 사람들은
 벼락이 무서워
 피뢰탑을 높이 올리고 산다.
 내일이라도 한강 다리만 끊어 놓으면
 열흘도 못가 굶어죽을
 특별시민들은
 과연 맹목기능자이어선가
 도열병약광고며, 비료광고를
 신문에 내놓고 점잖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끝이 없을 것이다.
 숭례문 대신에 김포의 공항
 화창한 반도의 가을 하늘
 월남으로 떠나는 북소리
 아랫도리서 목구멍까지 열어놓고

섬나라에 굽실거리는 은행소리
조국아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 천연히 발갈고 있지 아니한가.
서울아, 너는 조국이 아니었다.
오백년전부터도,
떼내버리고 싶었던 맹장
그러나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지금쯤 어디에선가, 고향을 잃은
누군가의 누나가, 19세기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포도송이같은 눈동자로, 고무신 공장에
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수동 뒷거리
휴지 줍는 툼만이들의 부은 눈길이
빛나오면, 서울을 사랑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 「서울」(전집, 90~91쪽) 전문

서울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그것은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층건물들이 씨 뿌리고 생명을 일구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급자족의 생산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서울 특별시민들이 그의 눈에는 맹목기능자들로 보인다. 서울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아 벼락이 무서워서 고층건물 위에 피뢰탑을 올리고 산다고 화자는 비아냥거린다.

1960년대에 관 주도로 대대적으로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김포공항을 짓고 은행을 건설하고 월남 파병을 하고 하는 일들을 경제 성장이자 국력의 신장이라고 대대적으로 떠벌렸지만, 신동엽은 그런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굴욕적인 차관 외교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섬나라에 굽실거리는 은행소리”를 듣는다. 그러므로 신동엽의 시적 주체에게 서울은 조국이 아니다. 5백 년 전부터도 떼내 버리고 싶었던 맹장에 가까웠고 지금도 역시 자랑스러운 조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사랑한다”고 이 시의 화자는 고백한다. 그가 서울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아직 순수함을 잃지 않은 채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는 건강한 노동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맑은 눈으로 19세기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무신 공장에 다니는, 고향을 잃은 누군가의 누나는 시골에서 상경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관수동 뒷거리에서 휴지 줍는 툇마니들 역시 그들이 아직 빛나는 눈을 지니고 있는 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청춘의 상징이 된다.

제 몸을 움직여 일하는 민중들의 건강함이 살아 있는 한 서울이라는 공간에도 아직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신동엽의 시적 주체는 판단한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 역시 예감하고 있지만 말이다.

창가에 서면 앞집 담 너머로 버늘넝 푸르다. 뉘집 굴뚝에선가 저녁 짓는 연기 퍼져 오고, 이슬비는 온 종일 도시 위 절름거리고 있다. 석간을 돌리는 소년은 지금쯤 어느 골목장이를 서둘고 있을까.

바람에 잘못 쫓긴 이슬 방울 하나가 내 코 잔등에 와 앉는다. 부연 안개 너머로 남산 전등 불빛이 빗무리져 보인다. 무얼 보내신 이가 있을까. 그리고 무언 정말 땅으로만 가는 거일까. 정말 땅은 우리 모두의 열반일까.

창가에 서면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종종걸음치는 아낙의 치마자락이 나의 먼 시간속으로 묻힌다.

- 「창가에서」(전집, 68쪽) 전문

화자가 창가에 서서 바라보는 도시 골목의 풍경을 그린 시이다. 앞집 담 너머로 푸르게 보이는 버늘넝, 어느 굴뚝에선가 퍼져 오르는 저녁연기, 온종일 도시에 내리는 이슬비를 바라보며 화자는 상념에 젖는다. 그런 그의 눈과 마음에 석간을 돌리는 소년의 모습과 두부 한 모 사 가지고 종종걸음 치는 아낙의 모습이 특별하게 새겨진다. 늘 일정한 시간에 어느 골목에선가 석간을 돌리는 소년과 저녁 준비를 위해 두부 한 모 사 가지고 종종걸음 치는 아낙은 도시의 서민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신동엽의 시에서 도시 공간을 그릴 때는 화려한 변화보다 서민층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변두리나 골목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이들에게 도시는 하루하루 생계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활의 터전이다. 신동엽의 시는 제 몸을 움직여 일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따뜻한 연민과 신뢰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신동엽의 시에서 도시의 대립적 표상 공간으로 등장하는 자연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키울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 잃어버린 원수성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신동엽이 믿고 있는 귀수성의 세계로, 그가 그리는 유토피아이다. 신동엽은 「시인정신론」에서 유사 이후의 문명역사 전체가 인종계의 여름철 즉 차수성 세계에 속한다고 보고, 문명 이전의 에텐의 동산을 원수성의 세계라 보았다. 고향을 버리고 차수성의 세계로 들어온 인류 문명이 폭력성을 버리고 원시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귀수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전경인적인 생활 태도라고 신동엽은 보았다. 그가 인물 형상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자연 공간의 심상지리는 귀수성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동엽의 시가 구축하는 자연 공간에서 등장하는 민중 형상은 사실상 그가 상상한 전경인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다. 아사달과 아사녀로 대표되는 민중 주체는 전경인의 표상인 셈이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신동엽의 시는 자연과 도시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새로운 문화적 심상지리를 구축한다. 도시 빈민과 노동자, 무명의 민중 주체들을 형상화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라는 대립적 공간 표상에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심상지리를 구축한다. 이는 정부 주도의 근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1960년대에 신동엽의 시가 구축한 탈근대적 공간의 심상지리로서 새롭게 평가받을 만하다.

* 이 글은 이경수의 소논문 「신동엽 시의 공간적 특성과 심상지리」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했다.

* 한자로 된 시 원문을 한글로 변환했다.

참고문헌

- 신동엽 문학관, <http://www.shindongyeop.com>
 신동엽, 『신동엽전집』 증보판, 창작과비평사, 2004.
 구중서·강형철 편,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김응교, 「아사녀와 낙지발」, 신동엽학회 창립 학술대회 기념논문집, 신동엽학회 창립 준비 위원회, 2009.
 김응교, 『좋은 언어로』, 소명출판, 2019
 오문석, 「전통이 된 혁명, 혁명이 된 전통」,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10.
 이경수, 「『아사녀』의 행방-신동엽의 탈식민적 글쓰기」,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이경수, 「신동엽 시의 공간적 특성과 심상지리」, 『비평문학 39호』, 비평학회, 2011.03
 이동하, 「신동엽론: 역사관과 여성관」, 구중서·강형철 편,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인병선, 『벼랑 끝에 하늘』, 창작과 비평사, 1991.

▶ 가톨릭대학교 뒷길

도성을 따라 걷는 길은 대부분 성 안쪽에 조성되어 있어서 주로 어깨 높이 정도의 여장만 보인다. 그러나 낙산 구간은 전 구간이 성 바깥에서 걸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물론, 암문을 통해 성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를 따라 이어진 성벽길을 걸으면 한양도성의 웅장함과 견고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세종·숙종·순조 연간의 축성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삼군부 총무당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호〉총무당은 조선의 군무를 총괄하던 삼군부 청사의 중심이 되는 본전으로 원래는 광화문 남쪽 현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있던 것을 1930년대에 지금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이 건물은 조선 고종 5년(1868)에 건축된 것으로 양열의 덕의당, 청헌당이 있었으나 이곳에 총무당만 옮겼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2고주 7량

합각지붕이다. 조선시대 관아건물로서 보존된 희귀한 문화재이다.

▶ 장수마을

낙산공원 동남쪽 성벽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로 한국전쟁 후에 형성된 판자촌에서 기원한다. 60세 이상의 노인 거주 인구가 많아 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뉴타운 예정지였으나 주민투표로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하고 마을재생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주민들이 직접 집을 단장하고 골목길을 정비하여 지금처럼 산뜻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주민 참여형 마을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 낙산공원

장수마을에서 암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낙산공원 놀이광장이 나타난다. 낙산 공원은 서울의 몽마르뜨 언덕이라 불릴 정도로 전망이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노을과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 백악과 인왕산에서 서울의 원경이 보인다면, 이곳에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도심을 느낄 수 있다. 18세기 말 제작된 한양 지도 ‘도성도’에는 백악산(북악산), 인왕산, 목멱산(남산), 타락산(낙산)의 내사산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빼어난 자연이 담겼다.

서울을 구성하는 내사산 중 하나인 낙산은 서울 도성의 동쪽 산봉우리로 풍수지리로 볼 때 좌청룡에 해당한다.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좌청룡, 낙산에는 능선을 따라 도성이 설치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상당 부분 파괴·손실됐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와 주택에 잠식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역사 유물로서 기능을 잃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낙산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변의 녹지축과 연결해 낙산의 모습과 역사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이화마을

이화마을은 낙산 구간 성벽 바로 안쪽에 있다.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 많고 골목도 좁아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2006년부터 정부 지원 하에 예술가들이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빈터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마을의 이미지가 밝고 화사하게 바뀌었다. 마을은 낙산 정상부까지 이어지는데 계단 끝에 오르면 한양도성이 울타리처럼 마을

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성 안에 형성된 옛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창신동 봉제마을 (채석장 터)

서울의 맑은 바람과 높은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서울의 옥상 창신동. 창신동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다. 낙산 성벽 바깥쪽 창신동 일대는 조선시대에 퇴직한 궁녀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창신동은 채석장으로 운영됐으며 현재 잘린 땅이 곳곳에 남아 있다. 창신동은 높이 40m, 길이 201m의 깎아지른 듯한 돌산 절벽이 있는데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채석장으로 쓰였다. 덕수궁 석조전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서울에 지어진 석조건물의 상당수가 창신동 채석장에서 캔 돌을 사용하였다. 한국은행, 옛 서울역, 옛 서울시장,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을 때 이곳에서 나온 돌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나오는 화강암의 질이 좋았고 위치가 동대문 바로 밖이기 때문에 실어 나르기에도 편리했다.

채석장 절개지는 창신, 송인 지역의 독특한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해방 이후에 채석장 사용은 중단됐고 1960년대 무렵에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을 이뤘다. 그때부터 창신동은 동대문 시장에 의류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한국 봉제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창신동 봉제 박물관 이름피움은 '잇는다'는 뜻과 '피다'는 뜻에서 따온 말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새로운 미래를 피우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 이곳은 1960년대 신동엽이 시의 소재로 삼은 많은 누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와서 일하던 곳이다. 창신동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미성을 돌려서 그 돈을 고향에 보내 부모님과 동생들을 돌보던 곳이다. 누이들이 보내준 돈으로 동생들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고 부모님은 배고픔을 면하던 그 시절의 이곳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한양도성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동대문병원 일부를 철거하고 세운 서울디자인지원센터 1~3층에는 한양도성박물관이 있다. 방문객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주며 순성 정보를 제공한다.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박미산



약력

- 2005년 2월 「백석의 동화시」로 고려대학교 석사.
-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등단.
- 2008년 2월 22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아동성폭력 추방행사 100인 서명과 시낭송(용산 가족공원 시비건립)
- 2008년 12월 시집 『루나의 지도』(아르코문예진흥기금 수혜) 발간.
- 2011년 한국번역원 초청으로 몽골 국립대학, 울란바토르 대학 등에서 시낭송 및 강의
- 2012년 11월 18~11월 24일 중국 인민대학 초청 강연 및 시낭송
- 2012년 2월 「정지용 산수시 연구」로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취득.

- 2014년 1월 시집 『태양의 혀』 발간, 세종도서 문학나무 선정, 4쇄 발행.
- 2014년 조지훈 창작지원상 수상.
-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문화공간 <백석, 흰 당나귀>에서 “수요문화 강좌” 및 “수요 시(詩)토크” 기획
- 2015년 6월~2016년 6월까지 한글을 모르는 분들과 공부해서 2016년 7월 시집 『시, 잠자는 나를 깨우다』 발간. 현재는 그녀들과 수필공부를 하고 있음.
- 2017년 6월~2018년 현재까지 《세계일보》 「박미산의 마음을 여는 시」 연재.
- 2018년 3월~ 9월까지 《더리더》 「박미산의 맛있는 시읽기」 연재.
- 고려대, 방송대 출강, 디지털대학 초빙교수.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기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